그림엽서 보시로
'마음방역'하는 스님들

붉은 호랑이 禪畵, 삿된 기운 물리친다



'호랑이 엽서' 보시한 수안 스님

밝은 빛 상징하는 붉은 호랑이
코로나19 극복 · 희망 전하고자
'척사현정' 문구 넣어 엽서 제작
전국 사찰 등에 34만장 보시해
현 상황 해결하는 힘은 '자비심'

"붉은 호랑이는 빛을 상징합니다. 붉음은 빛입니다. 낮의 태양처럼 붉고 밝은 것이지요. 호랑이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대대로 산 아래 마을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호랑이는 산을 지키는 산신을 상징하며 강한 힘으로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선(禪)의 세계를 그림으로 담는 선서화의 대가 수안 스님이 코로나19에 대해 지녀야 할 가르침을 그림엽서에 담아 전달했다. 경면주사를 갈아 그린 붉은 호랑이 그림으로 엽서와 명함 크기로 제작 돼 전국 곳곳에 전달됐다. 처음에 12만장이 인쇄됐고 그 뒤 17만장이 제작돼 전달됐지만 스님은 그 수를 세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미 그 수는 넘었을 것이란 예측이다. 수안 스님을 3월 25일 양산 문수원에서 만났다.

스님이 코로나19 사태를 직접 경험한 것은 호주 시드니에서 돌아온 직후였다. 스님은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인 1세대와 2세대를 위한 복지 양로원 건립을 위해 전시 및 후원 활동을 하다 입국했다.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대구에서 터진 신천지 사태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시점이었고 스님은 마스크를 낀채 통도사 아래 위치한 문수원으로 돌아와야 했다.

붉은 호랑이 선화(禪畵)를 그린 날은 3월 4일 새벽이다. 새벽 정진을 하며 깨달은 바를 불자들에게 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정진을 멈추지 말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소원했다.

"새벽에 정진을 하던 중 나에게 누군가 질문을 하는 것처럼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불을 하면 그 경계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팔정도' 였습니다."

당시 신천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사회적 지탄이 종교를 향해 쏟아질 때였다. 스님은 작품 왼편에 '척사현정(斥邪顯正, 삿됨을 배척하고 올바름을 세운다)' 를 적었다.

"종교의 본질을 얻기 위해선 바른 길(팔정도)을 잃으면 안 됩니다. 번뇌와 망상이 정법을 잊게 합니다. 정법이 중요합니다. 영생이나 삿된 가르침 그리고 이적 행위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종교의 본질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몸에 지니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시작된 일이다. 정법으로 삿됨을 멀리하고 이웃을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함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후 스님과 평소 인연이 있는 스님들과 불자들은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후원을 시작했다. 신도들은 전국에 힘든 분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바른 한 생각을 떠올리길 기원했다.

수안 스님은 "호랑이가 영물이다. 코로나19를 잘 걷어내 다른 곳으로 옮겨주길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며 "코로나19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정법을 설명하며 함께 지녀야 할 가르침으로 '자비' 도 강조했다. 수안 스님이 강조한 자비에는 끝이 없었다. 자비의 대상으로 스님은 '코로나19' 도 언급했다. 병을 일으키는 균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쳐부순다는 마음으로 대상을 보면 안된다.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 몸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다. 두 가지가 공생하면서 한 몸을 이뤄낸다"며 "공(空)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다. 깨달은 자의 마음으로 공의 세상을 보고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한다. 작은 세포 하나, 원소 입자에도 불성은 있다. 실수하는 아이를 안아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듬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왜 '마음방역' 인가

일상된 '불안 · 분노' 마음 치유가 필요

일상이 사라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초 · 중 · 고교의 개학이 연기됐고, 외출 · 산책 · 여행 · 공연과 같은 평범한 일상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다.

코로나19 확산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일상이 정지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분노에 점령됐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뉴스와 정보를 접하고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8%가 '불안' 을, 21.6%가 '분노' 를 느낀다고 답했다. '충격(12.6%)' 과 '공포(11.6%)' 에 감정을 느끼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과 손 씻기 등 신체적 방역만큼 이제는 심리적 방역의 중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역시 지난 3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자와 일반 국민들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심리 방역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불안, 분노에 점령된 국민들의 일상을 이젠 희망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 역할은 '힐링의 종교' 인 불교가 나서서 맡아야 한다.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고 말했던 유마거사의 대승불교 정신은 현재 상황에서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제 불교는 '마음방역' 에 나서야 한다.

신성민 기자

"공포 · 원망 녹이는 '신중파워' 받아보세요"

'다워니 신중파워' 보시한 서주 스님

매년 '신중파워' 그려서 전달
올해엔 '코로나19 극복' 담아
페친 대만불자도 스티커 보시
타종교인 등 40여 명 신청해
"'다워니 신중'보며 위로받길"

서주 스님이 그리는 카툰은 '따뜻한 감성' 이 느껴진다. '다워니' 이라는 동자승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된다. 매년 봄 입춘 즈음에는 '다워니' 동자승은 신중님으로 변신한다. 그리고는 '신중파워' 를 작가 서주 스님의 SNS를 통해 쏘아준다. 온라인으로 만났던 다워니 동자승 '신중파워' 를 올해에는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코로나19 극복의 의미를 담은 다워니 동자승 '신중파워' 를 서주 스님이 그림엽서로 만들어 보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주석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석가사에서 만난 서주 스님은 "정말 우연한 계기로 그림엽서를 제작 · 보시하게 됐다"고 말머리를 풀었다.

스님이 그림엽서를 만들게 된 계기는 스님의 페이스북 친구 대만인 불자 진모결(陳玥潔) 씨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시기에 진모결 씨는 서주 스님의 메신저로 " '신묘장구대다라니(대비주)를 배경으로 직접 기도하며 그린 관세음보살을 귀엽게 얹어서 스티커를 만들었다"며 "매일 신묘장구대다라니와 반야심경을 기도하며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스님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보시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병마소멸 · 한국인의 안락을 발원하는 진모결 씨의 스티커와 저의 '2020년 신중파워' 그림엽서를 함께 담아서 필요한 분들에게 보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페이스북에 내용을 공지했죠."

스님의 공지에 약 40여 명이 신청했다. 신청 사연도 다양했다. 스스로 날라리 개신교인이라고 소개한 신청자는 "치료 중인 불자 친구에게 엽서를 보내주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고, 군인 아들에게 보내주고 싶다는 어머니도 있었다. 약 1주 간의 모집 기간을 거쳐 스님은 지난 3월 20일 신중파워 엽서와 스티커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평소 스님의 그림을 좋아해주는 도반들에게도 보냈다.

올해 입춘 그림엽서에서 다워니 신중은 민들레 홀씨로 분한 신중파워를 세상에 내보내고 있다. 서주 스님에게 코로나19로 이번 신중파워 그림엽서의 의미를 물었다. 스님의 답은 '대자비심' 이었다.

"중국 위앙종 9대 조사인 선화 상인은 능엄신주에 대해 이렇게 법문합니다. '불교에서 주력을 하는 것은 악하고 삿된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으로 섭수해 소멸하기 위함' 이라고요. 현재 사회 분위기는 공포-불안-원망 · 혐오의 악순환에 있습니다. 원망과 혐오로는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악화만 시키죠. 자비심으로 주위를 돌보자는 서원을 담아 '신중파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그린 다워니 '신중파워' 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서주 스님은 매일 석가사 대중 스님들과 '능엄주' 3독과 코로나19 극복 발원문을 봉독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기도에는 따뜻한 자비심 속에 현재의 위기를 잘 넘기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능엄주는 세상의 모든 독을 소멸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매일 열심히 기도하려 합니다."

신성민 기자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치약(ORAL MATE®)·비누(BLOOD MATE®)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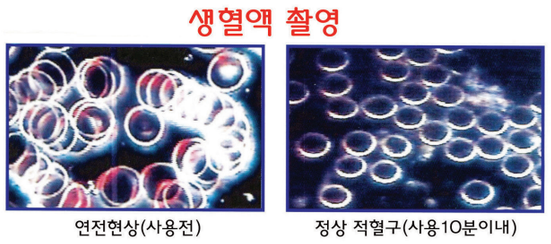
개발자 체험담
-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로 고생했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하여 감기를 잊어버린(나은) 경험.
- 비염, 축농증으로 코막힘이 심하고 누런 콧물이 자주 나왔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한 후부터는 코가 뻥 뚫리고 누런 콧물이 없어졌다.
-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눈동자를 마사지하고 나서부터는 안경을 써야 볼 수 있던 신문을 안경 없이 볼 수 있고 눈동자에 힘이 생겼다.
-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ORAL MATE®(치약)을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삼켰더니 식중독, 소화불량, 배탈, 설사가 없고 이틀에 한 번씩의 샤워로 6년 동안 감기, 몸살을 앓아 누워본 적 없다.
- 잇몸이 아프거나 이가 시릴 때에는 ORAL MATE®(치약)을 부위에 발라주면 통증이 그냥 없어진다.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치약(ORAL MATE®)을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그대로 삼키면

1. 폐렴균에 의한 질환 개선. 2. 식중독, 소화불량, 배탈, 설사를 예방. 3. 과식,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숙취해소 약을 먹는 것 보다 속이 빨리 편해지고, 술이 빨리 해독되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4.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없을 정도로 잇몸이 튼튼해지며 이나 잇몸이 아플때에는 치약을 아픈 부위에 발라 놓으면 밤새 통증이 사라진다.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비누(BLOOD MATE®)를 단 한번 쓰고, 연전현상의 적혈구가 정상적 적혈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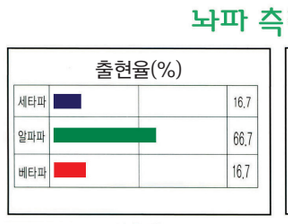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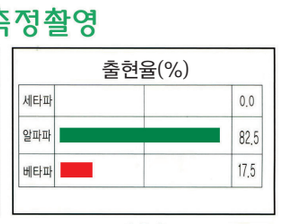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뇌파가 안정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과 다리에 쥐가 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포도상구균(화농성 세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않고 거품으로 마사지하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 보습과 투명피부의 효과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BLOOD MATE® 강비누: 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 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 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 치약이 별도의 추가부담없이 비누는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 정상화에 의한 피부질환 개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소화불량,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는 정부가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하고 장려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정책입니다.